

근대 미국 지리 교과서의 기저 사상과 주요 담론: 환경, 인종 그리고 문명*

서태열**

Major Discourse and Underlying Thought of Modern Geography Textbooks in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 Race and Civilization*

Tae-Yeol Seo**

요약 : 근대 초기에 성립된 국가인 미국이 정치와 사회,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지리 교과서는 당대의 중요한 사상 및 담론 들을 반영하고 전파하는 장치이자 시대적인 요구들을 담아내는 용기로서 역할을 하였다. 19세기 초반에 지리 교과서는 환경, 인종, 문명, 사회에 대한 체계화된 정보 및 지식들을 제공하였고, 사회가 연속적인 발달의 단계를 따라 진보한다는 아이디어인 문명사회발달단계론을 널리 보급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다윈의 진화론적 사고를 받아들여 교과서에 도입하는 등 사회, 국가,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지식을 공급하는 중요한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지리 교과서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였던 환경론은 주로 환경결정론에 입각하여 사회 및 인문현상을 설명하였는데, 19세기 말 진화론의 등장으로 환경결정론적 설명체계는 더욱 공고하게 되었다. 문명론은 19세기 초반부터 지리 교과서에 도입되어 핵심적인 교과 내용이 되었고, 야만에서 미개, 반문명 그리고 문명으로 이르는 인류 사회의 진화 경로를 제시하여 사회적, 국가적 발전방향의 모색에 중요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인종론은 인종과 대륙, 그리고 문명수준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 세계의 각 지역의 사회, 국가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틀이 되었고, 백인우월주의적인 관점을 유지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주요어 : 근대 지리 교과서, 환경, 인종, 문명, 진화론, 사회발달단계론

Abstract : When the United States as newly established nation tried transformation and reformation of politics, society, economy, culture in early modern era, modern geography textbooks performed the role of container and agency as diffusing major modern thoughts and discourses. Especially geography textbooks played major and active role in reflecting contemporary social and national demand in American education and nation building. In the early 19th century, geography textbook provided the stadial theory of social development which has sequential progression, and the useful and systematic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the environment, race and society. In the late 19th century, geography performed the role of diffuser and major resources for providing new knowledge and perspectives about society, nation and world, and introduced evolutionary ideas of Darwinism as new interpreting tools for natural and human world in textbooks. The focus of the environmentalism in geography textbook was mainly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natural phenomena and human phenomena based on environmental determinism which was reinforced by introduction of the evolutionism in late 19th century. The theory on the process of civilization which consist of stages from savage to barbarous, half-civilized, civilized was introduced from early 19th century, was used to seek social, national

*이 연구는 2022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tyseo@korea.ac.kr)

direction for development. The theory on the race has provided important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ocieties and nations around the world, and made a system which operates according to the level of civiliz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ntinents, and contributed to the racial viewpoint of White superiority.

Key Words : Modern geography textbook, Environment, Race, Civilization, Evolutionism, Stadial theory of social development

I. 서론

근대는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를 지칭하는데, 미국의 경우 산업혁명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므로, 근대적 국가의 성립한 이후부터 19세기까지를 근대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근대 지리학의 형성은 대학에서 지리학 강의를 시작하거나 학과가 설치되거나, 전임교수가 나타난 것과 같은 제도적 측면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미국 대학에서의 지리학과와 전임교수의 등장과정에서 보면, 아놀드 귀요(Arnold Guyot)가 1854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지리학과 교수로 임명되어 지리학 강의를 시작하고, 윌리엄 모리스 데이비스(William Morris Davis)가 1885년 하버드 대학의 지리학 교수로 초빙되고, 로린 셀리츠베리(Rollin G. Salisbury)가 1891년 시카고 대학 지리·지질학과 교수가 되어 1903년에 지리학과를 개설하는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이는 제도적 측면에서 미국의 근대 지리학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지리학 강의가 시작된 것은 이보다 훨씬 이른 것이었는데, 미국 독립 후 곧바로 1784년부터 1795년까지 콜럼비아 대학의 사범대학에서 존 다니엘 그로스(John Daniel Gross)에 의해 그리고 이후에 1812년까지 존 캠프(John Kemp)에 의해 지리학이 교수되었다(Herbst, 1961:539).

초·중등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지리가 근대적 시민의 육성을 위한 교과로서 가르쳐진 것은 대학교육에서의 지리학이 공식화되기 훨씬 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지리는 18세기, 19세기 학교에 잘 맞아 떨어졌고, 모험적이기도 하면서 실용적이고, 종합적이면서도 과학적이며 흥미진진하면서도 열정적인 독특하게 폭넓은 교과였고, 다면적 통합적 학습의 전망을 보여주었다(Schulten, 2001:92). 19세기 성경 외에 가장 광범위하게 읽힌 것은 교과서였는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지리 교과서와 지리부도였으며(Patton, 1999:4), 지리는 또한

역사보다 흔하게 학습되었다(Schulten, 2001:93). 지리는 미국에서 19세기 중반에도 인기도가 유사하게 상승하는 것을 누리고 있었다(Gornley, 1993:90). 19세기 지리 교과서에 담긴 지리 내용은 기후, 지질, 역사적 사건 그리고 문명의 “특성”이라는 분류의 구도를 따라서 암기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Schulten, 2001:93). 초기 역사나 다른 교과의 교과서가 그러하듯이, 지리 교과서의 내용들도 학생들의 숙달을 요구하였기에, 연결되지 않고 분절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질적 사실적 지식들의 덩어리였고, 암기물 덩어리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Littlefield, 1967:110). 그렇지만, 시대적 한계와 제한 속에서 교과나 과목이 담당했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19세기에 학교교육에서 선택율이 높았던 지리 교과서들은 한 세기 동안 초·중등 교육에 남아 있었는데, 지리 교과서들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18세기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1784년 제디디아 모스(Jedidiah Morse)의 첫 번째 교과서에서 19세기 말까지 거의 70년 이상 선택되었던 오구스투스 미첼(S. Augustus Mitchell)의 1892년 지리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지리 교과서는 기후, 토양 그리고 산물, 주민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특성, 종교, 정부와 역사에 이르는 주제, 한 국가의 경계들(국경)과 내부의 지역들에 대한 논의 등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었다(Littlefield, 1967:110). 특히 근대 미국은 서구 유럽의 다양한 새로운 근대 사상들을 도입하고 실현하는 사상의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19세기 미국의 지리 교과서는 인종, 환경, 문명, 사회 및 국가 등과 관련한 사상과 담론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David N. Livingstone)은 대학에서의 공식적인 지리학과와 등장하기 이전인, 19세기의 지리학의 역동적인 변화를 매우 의미있게 분석하였는데(Livingstone, 1992:177), 19세기 지리학은 자연과학(목적론적 자연관)이 지배하던 전반기에서 진화론이 지배 하던 시기로 전환하여 자연과 문화를 “하나의 개념적 우

산아래 놓는 실험'을 하였던 후반기로 구분한 바 있다. 그는 이 전환과정에서 19세기 후반 지리학은 중요한 세 가지 이론 즉 헬포드 맥킨더(Halford MacKinder)의 심장 부이론, 프리드리히 랫첼(Friedrich Ratzel)의 생존공간론, 데이비스의 지형발달론과 같은 이론들이 등장함으로써 근대 학문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지리 교과서에서 기후, 토양, 생산물, 주민, 사회적 특성, 종교 등의 주제들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한 세기동안 변화가 없었고 나열적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Littlefield, 1967), 지리 교과서 속에는 당대의 중요한 사회적 논의들이 구조화되어 내용 속에 숨어있었다. 실제로 19세기 당시의 지리 교과서는 사회적 변화들이 투영되었고 새로운 담론을 담은 용어가 되기도 하였다. 당시 지리교육은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인 환경, 인종, 문명과 관련된 담론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근대 지리학의 이론적, 담론적 변화양상이 근대 미국의 지리교육에서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투사되었던 핵심적인 아젠다는 환경, 인종, 문명과 관련된 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미국이 근대 국가로서 독립한 이후 19세기 말까지 지리 교육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핵심적인 아젠다였던 환경, 인종, 문명에 대한 담론들이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근대 미국에서 서구 유럽의 새로운 사유와 사상의 도입을 통해 하나의 문화와 사상의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기저 사상과 담론 들을 폭넓게 검토하고, 주요한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근대 미국의 지리교육의 전개 과정과 내용

미국에서의 근대 학교 지리교육의 발달과정은 지배적인 아이디어와 핵심적인 인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여러 학자들이 그 과정을 분석하였다. 찰스 드라이어(Charles R. Dryer)는 지리교육 및 지리학의 발전 과정을 6단계로 제시하였다(Dryer, 1913a; 1913b). 즉 고대 그리스에서 19세기 중반까지를 지명사전 단계, 19세기 중반에서 1873년 귀요 전까지를 Wonder Book 단계, 1873년부터 귀요의 활동시기까지 자연신학(Natural Theology) 단계, 토마스 헨리 헉슬리(Thomas Henry Huxley)의 지

문학(physiography)이 도입되고 1888년 러셀 힌만(Russel Hinman)이 진화론을 지리 교과서에 도입한 일반지문학의 단계, 그리고 그에 이은 특수 지문학의 단계 그리고 1904년 이후 생명체와 그들 자연환경과의 관계의 방향으로 진행된 생태지리(biogeography) 단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프레스톤 제임스(Prestone E. James, 1969)는 미국 독립 전의 시기, 모스가 주도한 독립 후의 시기, 그리고 칼 리터(Carl Ritter)의 제자로서 리터의 목적론을 바탕으로 주도한 귀요의 시기, 그리고 목적론을 대신하여 진화론을 바탕으로 설명적 방법을 더한 데이비스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한편 앤 베이커(Anne Baker, 2005)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사이의 기간동안의 지리교육을 두 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1차 파동기와 2차 파동기로 설명하였다. 즉 미국 독립 후에 지리교육의 성립과 기초를 만들었고 가장 유명한 지리 교과서의 저자들인 모스와 수잔나 로손(Susanna Rowson) 등이 주도하였던 1차 파동기(first wave)와, 요한 페스탈로치(Johann Pestalozzi)의 영향을 받아 아동의 도덕적,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능력을 최고의 상태에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난 교육개혁을 통해 윌리엄 우드브릿지(William Woodbridge), 제임스 카터(James G. Carter) 등이 주도한 1820년대에 일어난 2차 파동기(second wave)로 설명하였다. 로렌스 하우만(Laurence M. Hauptman, 1978)은 지리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특히 인디언을 다루는 관점을 중심으로 미국 지리교육이 모스에서 시작하여 귀요로 이어졌고, 진보라는 아이디어로 설명되었던 프론티어 시대로 연결되는 과정을 조명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미국의 근대지리교육의 전개과정을 정리하면, 미국 근대 지리교육의 발전과정은 미국의 독립후 모스에 의해 지리교육의 기초가 놓여 지던 시기, 그리고 모스의 지리교육을 개선하여 우드브릿지를 중심으로 한 학생중심의 지리교육으로 전환하였던 시기, 그리고 다소 중세적인 질의-응답 식의 교과서를 통한 지리교육을 진행하였지만 자연지리-수리지리-정치지리의 3분 구도 등을 통하여 미국에서 거의 80여 년 간의 초, 중등 지리교과서의 저자이자 지리교육을 주도한 미첼이 활동하였고, 대학교육에서 귀요가 유럽적인 지리학을 도입하였던 자연신학의 시기, 그리고 자연신학이 진화론으로 대체되고 지문학을 넘어서 자연지리학을 중심으로 데이비스가 지리학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기: 미국의 독립후 모스 주도로 근대 지리 교육의 기초가 놓여지던 시기,
- 2기: 1820년대부터 모스의 지리교육을 개선하여 우드 브릿지를 중심으로 한 학생중심의 지리교육으로 전환하였던 시기(학생중심 지리교육의 도입기),
- 3기: 질의-응답의 내용 기술 구조와 자연지리, 수리지리, 정치지리의 내용 영역 구조의 3분 구도로 정형화된 미첼류의 지리 교과서가 주도하고, 귀요가 유럽 지리학을 대학교육과 중등교육에 도입하였던 자연신학 중심의 시기,
- 4기: 1880년대 이후 자연신학이 진화론으로 대체되고, 새롭게 등장한 지문학을 넘어서 자연지리학을 중심으로 Davis가 지리학의 정체성을 제시하였던 시기.

1. 모스 주도의 근대 지리 교육의 형성기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근대 국가를 형성시켰으나, 독립 초기에는 여전히 영국적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전문적인 지리 서적과 지리 교과서는 영국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미국 혁명(독립)전부터 미국에서 통용된 지리 교과서들은 유럽에서 출판된 것이었고, 프랑스 지리 서적의 영어 번역본을 비롯하여 영국의 윌리엄 구스리(William Guthrie)의 지리 서적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Boston, New York, Hartford 그리고 Philadelphia에 있었던 출판사들이 주도적으로 서적들을 출판하고 있었다(Patton, 1999:5).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적이거나 영국적인 관점이 아닌 미국적 관점을 가진 지리서와 지리 교과서에 대한 요구가 강력해지고 있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것은 예일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초반의 모스였다. 그는 1784년 중등학교에서 사용할 지리 교과서로 *Geography Made Easy*라는 작은 책을 써서 매우 큰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인쇄술의 한계로 세계지도와 미국지도 단지 두 장의 지도만 포함되었으나, 이 시기에 미국인 가정에서 성경과 철자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유한 책이 되었다. 그는 이어서 성인을 위한 지리서인 *American Geography* (1793)와 두 권짜리 *American Universal Geography* (1793)를 썼다. 이러한 책들이 미국의 학교, 대학, 가정에서 광범위하게 읽혀서 모스는 미국 지리의 아버지로

간주되기도 한다(Hauptman, 1978:425). 모스의 책들은 판본을 거듭하면서 인쇄되었고, 이후의 저자들이 이를 모방함으로써 미국인들이 세계와 그 속의 장소들에 대해 사고하였던 방식들을 형성하였다(Baker, 2005:175-176). 이로 인해 이 시기의 교과서들은 모스의 것을 많이 빌려왔는데, 모스는 당시 미국에서 인기가 높았던 영국의 구스리의 것을 많이 빌려온 것이 두드러졌다(Baker, 2005:170-171).

모스의 지리 교과서 *Geography Made Easy*의 구조를 보면, 천문지리(astronomical geography)와 지리적 정의를 다루고 곧바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다. 당시까지는 개론적인 도입부에 이어 세계의 여러 지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영국과 유럽대륙을 다루는 것이 관례였다. 모스가 이를 미국과 아메리카 대륙을 먼저 다루도록 바꾼 것은 획기적인 변화였고, 당시 영국에서 독립한 직후의 미국인들은 이에 대해 커다란 호응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시기를 베이커는 1차 파동기라고 하였다

모스가 쓴 지리 서적들은 모두 앞부분의 개론 부분에서 천문지리를 다루고, 그 다음에 미국지리, 세계지리를 다루어 나갔고, 천문지리에서는 지구와 그 원주, 산, 하천, 기후 등을 다루는 등 전통적인 지리 교과서의 구조들을 유지하였다. 당시 유럽의 지리 교과서는 천문학적 부분과 결합되었고, 측지학, 항해술과 관련된 수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지구의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지리서와 지리 교과서에는 천문지리(astronomical geography) 내지 수리지리(mathematical geography)라는 이름 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특히 모스는 유럽적인 지리 교과서의 전통처럼 천문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완전한 지리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The American Geography*의 천문에서 다음과 같이 종교적인 관점을 기술하였다.

“지리의 완전한 지식은 천문학과 다소 친숙하지 않고는 성취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개요서는 그 과학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시작할 것이다. 천문학은 천체를 다루고 그것들의 이동, 시간대, 거리와 크기를 설명할 것이다. 이들의 규칙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에서의 조화로운 질서는 그들의 창조자와 수호자가 무한한 지혜와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Morse, 1789:1; Vining, 2011:30-31)

1700년대를 넘어서 1800년대 초기 즉 19세기 초기로 넘어가면서 지리 교과서의 내용구성이 두드러지게 달라 지지는 않는다. 모스가 쓴 지리 교과서의 영향으로 대부분 아메리카 지리를 먼저 다루는 변화 외에 두드러진 것이 없었다. 지리는 산, 하천, 산맥과 같은 자연지형에 대한 정보와 장소, 인구, 국가의 생산물과 사회적 조건, 주요 도시 등에 대한 수치들을 담고 있었다. 모스에 이어 널리 알려진 지리교육자인 수잔나 로슨(Susanna Rowson)도 지리교과서인 *An Abridgement of Universal Geography* (1805)을 썼는데, 산, 강과 같은 두드러진 지형적 양상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주제들을 언급하고, 그런 후에 특성, 종교, 생산물, 그리고 농업과 같은 범주들로 이동하였는데, 대부분 모스와 유사하였다(Baker, 2005:171-172).

이러한 모스의 지리 교과서 구성구조는 1700년대 독일에서 많이 사용되어 영국에서 번역하여 사용하였던 Hübner(1749) 책¹⁾의 구조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영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던 지리 교과서 내지 지리서적의 내용 구조와 유사하였다.

한편, 당시의 미국의 지리 교과서의 내용 전개 방식은 기독교의 교리문답 스타일(catechetical format) 즉 질문-대답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17세기부터 사용되어 온 유럽 교과서의 일반적인 형식이기도 하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교리문답 스타일은 초기 교과서에서 꽤 인기가 높았고(Patton, 1999:7), 19세기의 전기 동안 질문-대답 형식은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지리 교과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Culler, 1945). 그러나 남북전쟁 이후 이러한 교리문답 스타일은 매우 어린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지리 교과서에서만 나타난다.

Patton(1999:19)에 따르면, 이러한 질문-대답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통한 이 시기의 지리교육의 교수법은 암기이었으며, 이러한 규칙과 사실들의 암기는 가장 보편적이었으며 칭송받는 관행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모스에 이어 널리 알려진 지리교육자인 로슨 역시 교리문답의 암송과 명백하게 맞아떨어지도록 교과서를 구성하였고 전적으로 질문과 대답 형식이었다(Baker, 2005:171). 당시에는 암기 교수법은 특히 지리의 교수에 적절한 것으로 보여졌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19세기 지리는 주로 기술적 과학(descriptive science)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당시 유용한 것은 비교 도표(comparative chart)였는데, 그것은 가장 높은 산들, 가장 긴 강들, 가장 큰 섬 등과 같이 비교하여 보여줌으로써 암기를 도와

주고자 하였다(Patton, 1999:23).

한편 이 시기에 교과서와 분리된 지리부도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암기를 위해 과제들을 지원할 도구로써 지도가 주목을 받았다. 매튜 카터(Mathew Cater)는 지리 교과서에서의 지도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불만족스러워, 교과서에 동반된 부도를 분리해서 출판하는 것을 생각하였고, 1795년 최초의 미국 학교 부도인 *The General Atlas for Cater's Edition for Guthrie's Geography Improved*를 출판하였다. 이는 당시에 사용되었던 일반지도책의 축약본이었지만, 그 결과로 1820년대 지리교육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디자인된 지리부도가 나타났다(Patton, 1999:9).

그리고 지리교과서의 중요한 내용구조인 3분 구조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즉 Parish(1810)는 그의 지리 교과서에서 지리학의 개념과 지식을 다루는 일반적 지식 부분을 Astronomical, Natural, Political Geography로 삼분하였고, 세계의 여러 지역을 다루는 내용을 Topography 또는 Particular geography라고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천문지리, 자연지리, 정치지리의 3분할 구조는 미국의 지리교과서에서 거의 90년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구조가 되었다.

2. 우드브릿지 주도의 학생중심 지리교육의 도입기

모스 등에 의해 주도되었던 미국 지리교육의 성립기는 미국 중심의 독자성을 모색하면서도 전통적인 학교 중심, 교사 중심의 교육이었는데, 1820년대에 교육의 목적과 방법의 측면에서 아동 중심, 직접적 경험 중심의 교육으로 새로운 흐름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820년대 뉴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교육개혁 및 지리교육의 개혁운동을 통해 일어났는데, 베이커(2005)는 이를 지리교육의 두 번째 파동(Baker, 2005)이라고 불렀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교육방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페스탈로치의 자연주의 교육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지리 교과서를 통한 지식의 전달 위주로 그리고 애국심과 국가주의적 감정을 고취하고 종교적, 도덕적 가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보았던 미국 독립 초기의 지리교육이, 스위스의 교육자인 요한 페스탈로치(Johann Pestalozzi)의 영향으로 아동의 발달과 성숙을 돕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Baker, 2005:176). 페스탈로치식 교육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장려하여 학생의 도덕적,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감각의 이용한 지식의 형성이 중요하였다. 베이커(2005:177-178)는 이 지리교육의 두 번째 파동의 중심적 내용은 학습과 정이며, 시각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강조와 맹목적 암기 대신에 경험을 통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혁신의 중심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시기의 지리교육자로는 윌리엄 우드 브릿지(William C. Woodbridge), 엠마 윌라드(Emma Willard), 제임스 카터(James G. Carter) 등이 있는데, 그들은 페스탈로치의 유년기와 학습심리학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실천하고자 하였고, 맹목적인 암기에서 벗어나 현상의 기저에 있는 개념들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특히 우드브릿지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였는데, 가장 혁신적이었던 그는 스위스의 페스탈로치 학교를 직접 방문하였고 전통적 교수방법이 아닌 시각적 방법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전통적인 지리 교수법을 버리고 지도, 삽화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중시하였고, 교수에 있어서 심리학과 과학적 방법으로 직접 경험에서 출발하여 학생의 경험의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과서는 정치적 단위를 따라서 배열하지 않고, 자연의 보편적 원리나 지적 원리에 따라 배열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에 따라 우드브릿지의 혁신적인 교과서의 인기는 높았고, 1820년대와 1830년대 지리 교과서의 저자들도 이러한 방법들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옮겨갔다.

특히 우드브릿지는 전통적인 교과서의 서술에 의존하는 방식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어서 '마음의 작동을 관찰해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며, 눈이라는 매개를 통해 얻어진 인상들은 단순한 기술에 의해 산출된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보다 연속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Baker, 2005:178), 지도와 같은 시각적 자료의 이점에 대해 매우 강력한 지지를 보였다.

우드브릿지는 프랑스 지리학자 콘나드 말테브룬(Conrad Malte-Brun)뿐만 아니라 독일의 언어학자 윌리엄 훔볼트(William von Humbolt)와 그의 동생인 지리학자 알렉산더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t) 형제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Callhoun, 1984:14). 지리학자 알렉산더 훔볼트는 언어전문학자인 형 윌리엄 훔볼트의 영향으로 유창한

언어학자였고, 언어적인 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찾고 그것을 지도화하였다. 훔볼트는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등온선을 처음으로 만들고 그것을 지도화하였는데, 물리적 세계와 관련된 정확한 지도를 만들고 그러한 지도들에 정치적 경계선이 그려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물리적 지도 위에 어떻게 개념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Callhoun, 1984:14-15). 다니엘 칼훈(Daniel Calhoun, 1984)에 따르면, 말테브룬이 프랑스 파리에 있던 시기에 훔볼트도 파리에 있었고, 우드브릿지는 이들을 방문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에서 이처럼 활발하게 활동한 우드브릿지는 학교 지리부도에서 특별한 역할과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당시에는 획기적이고 단연 두드러진 주제가 등장하는 지리부도를 제시하였다. 제프리 패튼(Jeffrey Patton, 1999)은 우드브릿지의 지리부도에 포함된 획기적인 세 장의 지도 "A Moral and Political Chart of the World", "A Chart of the Principle Animals of the World", "An Isothermal Chart of Climates and Productions"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Patton, 1999:12). 첫 번째 지도는 미국 지도 제작에서 등온선(isotherm)의 가장 일찍 사용된 사례를 보여주었는데(Robinson, 1982), 다양한 생산작물의 범위와 등온선에 의해 표시된 온도를 상호 관련시켰다. 등온선도를 최초로 지도화한 인물은 훔볼트인데, 우드브릿지는 그가 교신하였던 독일의 지리학자인 알렉산더 훔볼트에게 등온선도에 대해 유명한 감사의 글을 보내기도 했다. 두 번째의 지도는 세계의 다양한 동물들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세 번째의 세계지도인 "도덕, 정치 차트(moral and political chart)"는 문명의 정도, 여성의 조건과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용하여 각 국가들의 문명의 정도에 따라 세계 각 국가들을 범주화하여 지도화한 최초의 지도였다.

우드브릿지와 함께 윌라드도 새로운 지리교육의 방법을 도입하려는 많은 시도를 하였고, 종래의 교리문답적인 교수의 구도를 버리고 학생들이 개념에 의해 현상을 파악하고 조감하는 감각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Callhoun, 1984:14). 그리고 그녀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 세계지도를 가지고 지도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는 대신에, 여기 학생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그들 자신의 고장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한다"라고 페스탈

로치의 교수방식처럼 가장 단순하고 가까운 것에서 시작하여 경험을 확장해나가는 방식을 제시하였는데, 지리교수에서 그녀가 “가정 지리(home geography)”라고 부른 것이 인기가 매우 높았다(Patton, 1999:23). 그리고 그녀는 많은 학교 지도 위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개념의 흥미로운 구현은 익숙한 지역의 지도를 어린아이들이 아직 익숙치 않은 세계의 일부 지도의 지도위에 중첩시키는 것을 통해 보여주었는데(Patton, 1999:24), 동일한 축척으로 대륙도 위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익숙한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그 대륙이 얼마나 큰 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기의 우드브릿지나 윌라드와 같은 혁신가들이 학생들에 맞추어서 만든 지리 교과서들은 점점 정치적 단위를 따라 내용을 배열하지 않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지만 하천, 산, 기후 등과 같은 범주에 따라 정보를 분류하고 그 범주들에 따라 그 대상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포함하는 당시로서는 보편적 범칙 내지 안정된 원칙에 따라 내용이 배열되었던 것이다(Baker, 2005:181). 이를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드브릿지의 지리 교과서의 속표지에 삽입된 다음 그림 1인데, 여기에서 세계의 산들은 등급과 순위에 의해 비교와 분류가 되어 질서화된 자료로 제시되었다.

3. 지리 내용의 기술 구조와 영역 구조가 정형화된 자연신학의 시기

19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는 시기의 미국의 지리 교육에서는 중세적인 질의-응답식의 내용 전개 구조와 신이 조화롭게 설계해놓은 자연의 질서를 바라보는 목적론적 자연관 내지 자연신학은 항상 지리 교육과 지리 교과서의 그 기저에 있었다. 그리고 앞 절의 미국 지리 교육 발달의 2단계에서 시도된 아동중심, 학생중심의 시각적 자료를 통한 지리교육의 개혁은 더욱 체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실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는 시각적 자료들의 활용은 더욱 강화되고 학생의 직접적 경험이 더욱 강조되었고, 지리 교육의 내용으로서 교과서의 천문지리, 자연지리, 정치지리의 삼분법적 구조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또한 지리 교과서는 당시 미국사회의 핵심적인 주제들인 사회발전의 방향, 문명론, 환경관과 인종론을 다룸으로써 사회적인 주도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즉 미국 사회의 발전의 방향을 설정할 문명발달론 내지 사회발달단계론을 학교 지리에서 다룸으로써 사회

에 큰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환경과 인종에 대한 당시 사회적 통념과 인식들이 많은 사회적, 국가적 주목을 받았다.

이 시기는 가장 많은 지리 교과서를, 가장 오랫동안 집필한 미첼, 사라 코넬(Sarah S. Cornell), 데이비드 워렌(David M. Warren), 조지 울워스 콜톤(George Woolworth Colton), 제임스 몬테이스(James Monteith) 등이 지리 교육을 주도하는 가운데, 스위스와 독일에서 교육을 받았고 리터의 제자였던 귀요가 미국으로 건너와 우드브릿지가 강조한 페스탈로치의 자연주의 교육과 지리 교수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실행에 옮기면서 지리 교육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는 등 지리교육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1860년대의 남북전쟁 이후 미국이 서부로의 팽창이 가속되어 새로운 지리적 지식은 확장되고 있었고, 자연현상의 설명에서 기저이었던 목적론적 자연관을 대체할 진화론이 등장하고 있었다.

19세기 대부분의 시기동안 미국 지리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한 미첼의 경우, 당대의 가장 표준적인 교과서의 구조를 잘 보여주었다. 그는 기존의 학교 지리 교과서의 천문지리 또는 수리지리(astronomical or mathematical geography), 자연지리 또는 물리지리(natural or physical geography), 공민지리 또는 정치지리(civil or political geography)라는 3분 구조를 정형화시켰고, 당대에 논쟁이 되거나 논의의 중심이 되었던 인간 및 사회 관련이론인 문명 사회 발달 단계론과 인종론을 적극적으로 지리 교과서에 실었다. 정형화된 지리교과서의 3분 구조에서, 수리지리 또는 천문지리는 중세 시대의 지리서에서부터 다루어왔던 태양계의 여러 행성과 그 운동, 지구의 형상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자연지리는 산, 하천, 기후,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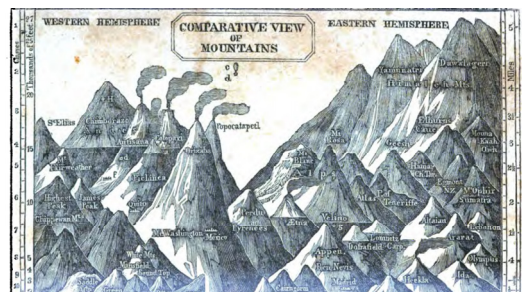


그림 1. 우드브릿지의 지리 교과서 속표지 삽화-산의 등급 출처 : Woodbridge, 1822:표지.

절 등 자연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이었으며, 정치 지리는 인종, 사회의 단계, 정부, 종교, 언어, 정치적 구분 등 사회생활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담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지리 과목은 자연현상에서 인문 사회 현상에 이르기까지 관련되는 개념과 이론적 구분들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미첼은 앞의 단계에서 일어난 시각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수용하여, 자신의 교과서의 속표지에도 삽화를 넣을 정도로 교과서에 포함된 삽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삽화와 지도의 개수까지 밝히면서 거의 모두 독창적인 디자인에 의한 그의 삽화들이 단순한 장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그의 교과서는 속표지에 지구전체에 걸쳐 펼쳐지는 문명, 인종, 자연, 사회를 포함하는 문명발달단계의 내용을 담은 삽화를 실었는데(다음 장의 그림 3 참조) 매우 상징적이어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다. 그는 교과서의 내용에서 사회적 조건에 따라 우선 두 개의 큰 단계 즉 야만(savage)과 문명(civilized)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의 것은 영구 거주지가 없고 그들의 가축을 데리고 또는 사냥감을 찾아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것이고, 두 번째의 문명화된 국가들은 도시와 읍을 건설하고, 지속가능하고 안락한 집을 지으며, 질서와 산업, 도덕성, 종교와 관련한 축복받은 것들을 즐기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Mitchell, 1867:32). 이러한 이분법을 바탕으로 그는 야만을 세가지로, 문명을 두 가지로 세분하여 야만(the savage), 미개(barbarous), 반문명(half-civilized), 문명화(civilized), 개화(enlightened)의 다섯 가지의 문명의 상태 내지 사회 발달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미첼의 교과서에서 이러한 사회의 다섯 단계는 인종적, 민족적 집단구분에 상응하면서, 널리 수용되어져 나갔다. 이러한 내용에서 다루는 국가나 인종의 상대적 성취에 대한 논의는 문명의 수준(level of civilization)이라는 용어 속에 잠복해 있었고, 야만에서 문명에 이르는 단선적인 진보에 대한 언명은 거의 한 세기 동안 미국 중등학교 교육의 표준적인 부분이었다(Schulten, 2001:99).

미첼의 교과서는 1839년 *Mitchell's School Geography* 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판이래, 초, 중, 고 지리 교과서를 시리즈로 180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출판되었고 반응이 좋고 선정율이 매우 높았다. 숄텐(Schulten, 2001)은 미첼의 지리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미첼의 거의 모든 지리적 설명의 기저에 흐르는 것은 자연신학(natural theology)이었으며, 그 안에서 지구의 자연에서 세계의 정치적 조직에 이르는 모든 것에는 그 원인인 신성한 창조가 있었다. 사실 기독교는 미첼의 지리에서 중요한 동력이며, 그것은 제국주의적 접촉을 통해 퍼져나갔다. 기독교 국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식과 힘에서 훨씬 월등하며,.... 기독교의 성장과 별도로, 미첼의 현상적으로 인기있는 지리는 일반적으로 비역사적이고, 비공간적이며, 그리고 일차원적이었다. 그것은 그 당대의 전형적인 것이었다.”(Schulten, 2001:99)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Littlefield(1967)는 당대의 미첼류의 지리교과서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즉 지리교과서는 19세기 중반에 역사적 정보의 주요한 원천이었는데, 지리 교과서에서 구현되었던 교수방법은 조야하였고, 맹목적 암기의 대규모 처방을 강조하였으나, 지리 교과서에 포함되었던 역사 내용은 그 시대의 미국사 교과서들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보다 결정적인 것이었고, 특히 당대의 역사와 지리 교과서는 모두 미국 동부의 분파적 편견과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적 이상을 향한 기본적 지향을 공유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Littlefield, 1967:158).

한편 스위스와 독일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온 귀요는 미국 대학에서 최초의 지리학과 학과장이 되었는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1854년에서 1880년까지 근무하였다. 그는 스승인 리터와 페스탈로치의 영향으로 지리가 기술하는 수많은 목록을 담은 무미건조한 “지명 잡지와 마법서”와 같은 단순한 기술의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직접 관찰과 측정 그리고 기록을 통해 그들이 보는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Herbst, 1961:539). 그리고 그는 괴테, 헤겔 등과 같은 독일의 자연철학자들에 영향을 받아서, 낮고 균질적인 유기체에서 보다 높고 다양한 유기체에 도달해나가는 발달의 법칙(law of development)을 비유기체인 자연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의 정신적인 멘토이자 스승인 리터와 같이 기독교에 바탕한 목적론적 자연관을 통하여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Herbst, 1961). 특히 귀요는 그의 스승인 리터의 “인간과 자연의 본질적 통합성 그리고 지구에서의 인간에 대한 관찰된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계획의 개념에 기초

한 지리학의 새로운 과학적 접근"을 미국에서 실천하고자 하였다(James, 1972:164-170; Hauptman, 1978:427).

유겐 허브스트(Jugen Herbst, 1961:539)에 따르면, 귀요는 자연철학에 바탕한 법칙을 문명의 대륙별 진화과정 즉 그가 "역사의 지리적 행진(the geographical march of history)"이라고 불렀던 과정을 제시하였다. 귀요는 아시아는 요람, 유럽은 학교, 그리고 아메리카는 인간의 인간다움의 무대(the theater of man's manhood)와 같이 각각의 대륙들이 인류의 교육에서 특정한 역할과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과정은 아시아에서 초기의 그리고 가장 낮게 발달된 문명에서 시작하여 아메리카에서의 가장 높은 단계인 인간다움을 성취하는 단계로 나아가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Herbst, 1961:539-540; Wright, 1952:85). 그는 이를 통해 대륙과 대륙의 진보와의 관계를 환경결정론적 설명을 통해 암묵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귀요는 초등 지리교과서인 *Elementary Geography For Primary Class*(1868)를 썼는데 당시에 높게 평가되고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그의 지리교육은 직접 관찰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발달의 법칙에 따라 자신의 뒤뜰에서 간단한 지리적 용어와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보다 큰 다른 지역으로 개념, 관계들이 전이되어 학습되도록 하였고, 이어서 외부 지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해외로 향해서 확대하면서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시에 유행하였던 방식 즉 자연세계에서 작은 강에서 큰 강 그리고 더 넓은 대양으로, 가장 낮은 산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층화되고 질서화된 방식으로 제시된 지리적 정보들을 학습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자연세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자연적 질서이고 이를 파악하고 발견하는 것이 지리학의 중요한 목표였다.

그런데, 귀요는 여전히 사실 암기, 인종, 국가, 대륙의 분류를 중심으로 정보들이 조직되어 있었고(Schulten, 2001:99), 귀요의 지리는 신의 수작업을 관찰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미첼도 귀요처럼 거의 모든 지리적 설명의 기저에 있는 것은 자연신학(natural theology)이었으며, 그 속에는 지구의 회전에서 세계의 정치적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신성한 창조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여 한계가 분명하였다(Schulten, 2001:99).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귀요, 미첼 등이 주도하였던 이

시기에 대해 칼훈(Calhoun, 1984:22-23)은 이 시기의 지리 교과서들의 중요한 변화들이 회화적이고 피상적인 형식에 고착되면서 유사과학적, 유사진보적인 형태의 전형이자 이데올로기로 변화해갔다고 평하였다. 특히 그는 이 시기의 전형적인 교과서는 회화적이고 쉽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살았던, 수많은 세계의 민족들을 뚜렷하게 다르게 서술하나, 그들은 등급화된 인종들로서 제시하고 있었고 자기만족적인 순진한 도식적 학습을 대량으로 보급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감각적 사실주의적 지리학자들의 개발과 이를 통한 교수법은 여전히 유효하였고, 교과서를 통해 당대의 주요한 사회적 주요 이론과 관점들을 담아내고 수업에서 다른 점은 재평가를 받아야한다.

4. Davis의 현대 지리학 모색기의 지리교육

1890년대 이후 미국에서 근대 지리학과 지리교육은 내용, 방법,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도전에 직면하였다. 대학의 지리학은 지리학과 설립으로 학술지리가 공식화되었지만 개성기술적인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은 도전을 받았고, 학교 지리교육에서도 전통적인 자연신학에 바탕으로 둔 질문-대답 방식 그리고 장소 명칭과 지질적 분류에 대한 기술적 암기 위주의 지리교육은 변화가 요구되었다.

지리학이 대학에서 제도화되는 가운데, 전문적 인적 자원의 부재로 하버드 대학의 지질학자인 나다니엘 사우스게이트 샬러(Nathaniel Southgate Shaler)에 의해 훈련받은 데이비스가 중심적 인물로 등장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Schulten, 2001:73). 데이비스는 1885년 하버드 대학의 자연지리학 조교수로 임명됨으로서 당시 새롭게 등장한 지문학을 넘어 자연지리학을 중심으로 자연신학을 넘어 진화론 시대의 지리학의 정체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데이비스는 지질학을 배경으로 하여 경관의 인문적 요소보다 자연적 요소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었는데, 1880년대부터 다원적 진화론을 지구의 지형의 연구에 적용하여 지리를 진화과학이라는 아이디어로 지질학의 하위분야가 아닌 독자적인 분야로서 대학에서의 지위를 합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는 지리학의 학문적 연구를 뒷받침할 학술기구로서 미국지리

학회(AAG: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이 되었다.

19세기 말까지 데이비스는 많은 젊은 지리학자들을 physiography(지문학)에서 훈련을 시켰으나, 지질학과 분리되어 발전시키려는 요구로 그와 그 제자들 모두를 지질학이 연구하지 않는 분야 즉 경관의 유기체적 인자들과 그 인문적 차원을 연구하도록 그들의 연구의 영역을 넓혔다(Schulten, 2001:73). 이들은 종래의 지형학 중심의 자연지리를 넘어서 “자연경관에 대한 인간의 반응(human response to physical landscape)”이라는 분야로 지리학의 연구를 확장하였다. 수잔 슈텐(Susan Schulten, 2001)에 따르면, 데이비스가 ontology와 geography를 결합하여 ontography라고 부른 이러한 접근은 지리학에 지질학과 다른 정체성을 가져다 주고, 지리학을 원인과 결과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분야로 만들었다. 또한 환경과 그 인간 거주자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가깝게 연결하는 지문학도 차별화할 수 있었다. 윌리엄 완츠(William Wamtz, 1964:145)는 데이비스가 지리학의 개념에서 다윈니즘적인 진화이론을 승인함으로써 지리학에서 비유기체적인 것인 측면과 유기체적인 측면을 하나의 전체로 통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데이비스는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후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당대의 고정관념을 깨고, 자연도 변화한다는 진화적 변화라는 아이디어를 자연현상에 적용하여 지형이 유년기, 성숙기, 노년기를 통하여 발달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지형의 발달에 대한 그의 첫 번째 논문에서, 데이비스는 “생명의 순환주기(cycle of life)”를 언급하였고(Herbst, 1961:540), 출생, 유년, 장년, 성숙, 노년기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고, 시간에 따른 형태에서의 일련의 변화들을 겪어나가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비유를 강조하려고 노력하였다.

유겐 허브스트(Jugen Herbst, 1961:540)에 따르면 데이비스에게 진화론은 경험주의를 넘어가는 중요한 논리적 도구였으며, 지형과 생명체들의 발달을 지배하는 합리적 원리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비유기체적 통제와 유기체적 반응의 하나로서 “자연환경과 생명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응용되어질 수 있는 자연선택 이론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데이비스가 보기에는 비유기체적 그리고 유기체적 인자들의 인과적 관계는 지리적 연구의 “유일한 통합적 원리는 아닐지라도 가장 결

정적인(중요한) 것을” 제공하므로(Herbst, 1961:540), 지리는 지리적 현상을 원인과 결과를 통해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 허브스트는 비유기체 그리고 유기체 인자들 간의 인과적 관계들에 초점을 두면서 인간생명의 형태들에 적용했을 때, 지리학자들의 사회적 진화론의 버전으로서 환경결정론의 부상을 위한 길을 닦았다고 평가하였다.

데이비스가 진화론을 이용하여 지리의 진화이론을 개발하였을 때, 그는 계통적 자연과학으로서 지리에 대한 초기의 관심으로부터 지리의 인문적 또는 문화적 측면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특히 진화론은 데이비스를 포함하여 당대의 지리학자들의 사고에 영향을 주었는데, 데이비드 스토다트(David. R. Stoddart, 1966:684)는 다음과 같이 네가지 측면에서 잘 드러난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시간을 통한 변화라는 개념을 가져다 주었고, 둘째,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와 환경간의 상호의존성과 연결성이라는 아이디어와 지구의 유기체적 통합성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었으며, 셋째 정치지리에서 국가적인 수준에서 투쟁과 선택은 매우 중요하여 국가의 성장의 법칙 그리고 생존공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며, 넷째, 자연에서의 변이의 무작위성 또는 우연성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데이비스가 진화론과 과학적 방법을 통해 대학의 지리학과 지리교육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을 때, 중등학교의 지리교육에서도 힌만(Hinman, 1888)에 의해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지리 교과서에서도 수백년동안 지배적이었던 자연신학을 대신하여 진화론이 등장하였다. 힌만은 직접적으로 자연선택을 다루어 인간과 유인원간의 유사성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인간이 유인원에서부터 내려왔을(descend) 가능성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찰스 드라이어(Charles R. Dryer, 1913a:147)는 힌만이 여러 사람들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생명에 관한 장에서는 아메리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담하게 그리고 처음으로 다윈과 헉슬리의 주장들, 유전, 변이, 적응, 환경, 선택, 진화를 제시하여 당대를 10년이나 앞선 지리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격찬하였다. 에릭 고펀리(Eric Gormley, 1993:92)는 힌만이 진화론을 지리 교과서에서 전개하면서도 개별 장의 도입부와 마무리하는 문장에서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것 모두를 유지하는 성스러운 지혜에 대한 존경”을 포함으로써 종교적

으로 강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힌만의 작업은 잘 받아들여졌으며, 10년 동안 표준적인 텍스트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힌만은 자신의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신체적으로 고려할 때, 인간은 하등동물들보다 고등 동물에 보다 밀접하게 닮았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수용되며, 고등 동물과 하등 동물들은 하나의 공동의 조상에서 다르게 변형된 후손이며, 인간 자신은 여전히 동일한 먼 조상으로부터 상이하게 변형된 하나의 후손이라는 추론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문명화된 인간과 심지어 가장 높은 수준의 동물간의 정신력의 정도의 차이는 가장 높은 동물과 가장 낮은 동물들 간의 차이보다 크고, 그러한 거의 무한한 발산이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매우 멀리서 내려온 유기체에서 일어났다.”(Hinman, 1888:353-354)

환경론의 관점에서 보면, 19세기 말의 지리학과 지리교육에서의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는 변화는, 한편으로 근대적 형태의 이론인 환경결정론을 낳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환경가능론이 제기됨으로써 지리 관련 쟁점과 관점들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리차드 피트(Richard Peet, 1985:310)는 이 시기에 형성된 환경결정론을 지리학의 근대 과학으로의 입문이었다고 평가하였는데, 환경결정론은 19세기 말의 세기적 전환기에 과학적 합법화의 체계를 갖춘 이론으로 등장하여 라마르크와 다윈, 그리고 사회적 진화론의 허버트 스펜스(Herbert Spencer)를 연결시켰고, 스펜스주의의 옹호자인 랫첼은 이를 더욱 정교화시켰으며, 미국에서 20세기에 앨런 쉴플(Allen C. Semple)은 이러한 논의를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다.

III. 근대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기저 사상과 담론

1. 근대 미국 지리 교과서에서의 환경론

지리학의 중심적 관심 영역인 인간과 환경 관계에 대한 연구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나타났었다. 히포크라테스는 “공기, 물, 장소에 관하여”에서 공기, 물이 장소에 따라 다르고, 이에 따라 점액질이 달라져 체질이 달라

짐으로써, 환경이 인간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그리이스 인들은 지구를 적도, 중위도, 고위도를 나누어 지대(zone)로 구분하고 지대에 따라 자연환경 특히 기후가 달라짐으로써 이에 따른 인간생활도 달라진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 고대부터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 내지 환경론은 지리의 중요한 관심이었으며, 중세의 대표적인 이슬람 지리학자인 이븐 할둔도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정치 및 사회체제도 달라진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서양의 중세에서는 모든 자연은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만들어 그 영광의 표현이고, 인간들에 대한 교육은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라는 자연신학(Natural Theology)에 바탕을 둔 자연관이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도에 따른 지대를 통해 환경 특히 기후가 달라지고, 이에 따른 인간의 생활도 달라진다는 관념은 계속 유지되었다. 또한 중세를 거치면서 우주 전체에 걸친 신의 의지를 관찰할 수 있는 천문학적 지식이 강조되고 확장되어 왔는데, 17세기, 18세기에 널리 사용된 바레니우스의 지리 서적에서 태양, 지구, 달과 같은 천체의 이동, 중력 등이 다루어진 것처럼 지리서에서 천문(astronomy) 부분은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19세기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었는데, 1800년대에서 1820년대 사이에 미국에서 출판된 교과서들을 보면 대부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천문부분과 지구에 대한 설명 특히 지구의 기후대별 구분과 설명은 공통적으로 삽입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벤자민 워크맨(Benjamin Workman, 1805), 벤자민 데이비스(Benjamin Davies, 1809), 수잔나 로손(Susanna Rowson, 1806), 나다니엘 드와이트(Nathaniel Dwight, 1808), 엘리야 패리쉬(Elijah Parish, 1810), 다니엘 아담스(Daniel Adams, 1820)의 교과서가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1700년대 말부터 출판되어온 워크맨의 교과서나 1810년부터 나온 아담스의 교과서를 비교해보면, 내용구조와 전개 과정에서 차이가 없다. 한편, 지구의 위도별 기후대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나, 기후대별 인간생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1810년대부터 새로운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기후대별 환경에 대한 설명이 보다 많이 추가되고, 보다 명시적인 진술들이 등장한다. 환경론의 측면에서 환경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비스(1805:27)는 “지구의 가장 좋은 부분은 온대에 있고...아

시아와 아프리카의 과도한 열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제도의 활력과 정신의 에너지를 주었다”라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패리쉬(1810)는 지구에 대한 설명 중 기후에 대한 기술에서 신의 섭리가 모든 작물에 깃들어 있음을 명시하면서 환경결정론적(기후결정론) 입장에서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세계의 모든 부분에서 기후의 힘은 인간의 특성에 결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다. 적도의 양쪽 즉 열대에서는 과도한 열기가 그러한 마음의 무기력을 만들어내고, 거주자들이 어떤 최고의 노력도 할 수 없게 한다.”(Parish, 1810:13)

이처럼 환경결정론적 사고는 19세기 지리 교과서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환경의 가장 강력한 인자는 기후였는데 국가의 위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설명인자였다(Schulten, 2001:97). 이에 따라 문명과 국가의 발달도 환경적인 요인 특히 기후에 의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19세기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미첼의 지리 교과서에서는 세계가 기후대별로 나뉘어지고 그것에 따라 문명의 발달의 정도가 상응한다고 설명되어졌다. 특히 인종적인 측면에서, 기후는 극단적인 조건을 가진 장소에서도 백인종의 생존 가능성을 말해주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지리학자들에게는 중요하였고, 이후의 교과서들은 인종우월주의와 결합하여 “백인종은 기후가 진보에 적합한 모든 지역에서 발견된다”라고 좀 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19세기의 지리 교과서에서는 인간 개인과 환경과의 연결을 찾는 것보다 기후구분에 따라 인간세계 및 물리적 세계를 분류함으로써 쉽게 구분하고 분류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러한 분류에서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가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은 인종이었다. 기후적 환경에 인종을 연결시키고, 그들이 만든 국가와 문명의 수준이나 단계에 연결시킴으로써 하나의 질서를 제시하는 것이 교과서의 기본적인 서술구조였다. 헨리 밀러 리틀필드(Henry Miller Littlefield, 1967: 154)에 따르면, 인종들 간의 인류학적 차이가 주로 기후, 음식, 그리고 하는 일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러한 차이가 좋은 사회적 행위와 나쁜 사회적 행위로 이끌어가서 사회적 집단적 차이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차이에 따라 여

러 지역들은 특징적인 산물, 상업, 무역체계를 가져온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몬테이스(1885)는 그의 지리 교과서에 “인류: 기후의 영향”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환경(기후), 인종과 문명의 발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인종은 피부색, 머리카락의 종류, 신체와 뇌의 구조에 의해서로 구분되며, 인종의 이러한 차이들은 주로 기후, 음식, 그리고 업무에서의 차이에 의해 형성된다...냉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육체적 크기와 정신적 힘의 모든 면에서 작다...인종과 국가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것이 지구의 어떤 부분이든 그곳의 기후에 적응한다...북부 온대 지역에서 또는 북위 30도와 60도 사이에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인간은 가장 높은 발전의 상태를 성취하였다...온대 지역에서는 지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린다. 그 땅은 작지도 얼음에 갇히지도 않는다; 지구에서의 위치, 산맥, 대양 해류, 그리고 계절의 변화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발전과 행복에 본질적인(결정적인) 활력과 진취적 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합된다.”(Monteith, 1885:44-45)

이처럼 환경결정론적 사고는 점점 인종, 문명의 발달 상태와 결합하면서 지리적 결정론, 인류학적 결정론으로 만들어져 갔고, 환경과 지리가 아메리카나 미국의 발전과 부흥을 예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특히 귀요는 아메리카의 거대하고 셀 수 없는 수많은 강, 온화한 기후, 해외진출에 유리한 해양적 위치 등 미국의 자연환경적 우월성은 하나의 프론티어로서 서구 전통의 신념과 희망의 상징이고, 유럽의 문명을 상속하여 부흥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미국의 운명에 대한 찬양을 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미국은 그 교양있고 진보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 사회적 조직을 가지고, 모든 인류의 평등과 형제애의 원칙위에서 건립되었으며, 기독교 문명의 가장 완성된 표상을 변창시키도록 운명지워졌으며, 그리고 모두 인류의 종들을 위한 새롭고 높은 생활의 원천이 될 운명이다.”(Guyot, 1873:120-121)

이러한 환경결정론은 더욱더 조직화되면서 19세기 말까지 매우 보편적이었으며, 환경적 차이가 국가적, 지역

적, 인종적 차이, 발전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리 교과서와 지리부도에서 다루어졌다. 슐텐(2001:33)에 따르면, 지리교과서와 지리부도는 기후, 인종, 그리고 “진보(progression)” 간의 결합된 관련성을 강조함으로써, 세계를 인종적 계층으로 짜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법칙에 따라 기술하였던 민속지 세계를 창안하였다.

이렇게 환경은 인종과 국가와 연결됨으로써 일종의 환경결정론적 메타지리(Schulten, 2001:37)를 만들었는데, “지구의 네 구역(The quarter of the globe)”이라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는 지리적, 인종적, 사회적, 자연적 그리고 동물적 특이성을 확인하는 4개의 일러스트(삽화, 그림)를 통하여 대륙적 구분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시기의 지리교과서나 지리부도의 중요한 내용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 이후 인종에 대한 논의에서 삽화와 함께 상술하겠지만, 지구의 각 구역에서는 대륙별로 네 가지 유형의 인간들은 그들의 고유한 자연환경에 자리를 잡는다. 슐텐(2001:35-36)의 조사에 따르면, 보통 상단 왼쪽구역에 전통복장을 입은 인디언으로 북미와 남미 모두를 대표하고, 그 오른쪽에 근대적 서양옷을 입은 대표적 유럽인이 있고, 하단 왼쪽에 대표적인 아시아인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전형적인 아프리카인이 있다. 이는 자연환경에 따라 세계를 나누고, 환경적 그리고 인종적 숙명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지지함으로써, 환경적 조건과 인간의 진보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을 설명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경관의 여러가지 요소들을 목록화하고 그 요소 항목들을 설명하는 종래의 중세적 지리에서 환경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근대적 지리로 옮겨가게 되었다. The National Geographic Society의 회장이 된 윌리엄 존 맥기(William John McGee)는 지리를 “인간의 진보가 형성되는 원인과 조건에 대한 탐구”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원인과 조건들을 밝히고 그 인과적 원칙의 발견을 추구하는 환경에 대한 역동적 과학으로 넓혀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리적 환경의 국가의 문명 및 진보에 미친 영향”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지리의 미래는 사람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힘만 아니라 지형을 형성하고 동물상과 식물상을 만드는 힘을 포함하는 지구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에 주로 헌신하게 될 것이

며, 산업, 예술, 상업, 법률, 정부, 종교 심지어 문명 그 자체도 궁극적으로 지리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측은 쉽고 안전한데, 그 이유는 현재의 지리가 이미 대상체들의 비유기체 부분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유기체의 진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수준을 향해 갈 나가고 있으며, 인간 조직의 과정과 원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을 바라보고 있다: 즉 예언의 원수는 단지 현재의 진보를 달성하는 것이 될 뿐이다.”(McGee, 1896:257-258; Schulten, 2001:51-52)

2. 19세기 지리 교과서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문명론

미국의 독립 초기부터 스코틀랜드 계몽사상은 철학적으로 다양하였지만, 사회적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적이고 개혁과 변화를 원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고 관련 서적들이 다방면으로 많이 읽혔다. 당시 근대화의 과정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사회와 국가의 건설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 및 사회의 발전과정 내지 문명화 과정 그리고 타국과의 비교를 통한 대륙별 문명의 분포양상과 발전상태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특히 지리 교과서는 미국 사회의 이러한 관심과 욕구를 잘 담아내기 위하여 문명과 문명발달의 과정 내지 단계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실렸다. 19세기 당시의 주요한 지리 교과서의 저자들은 세계를 성경의 시간들에 맞추어 사회의 발전도 설명하기도 하였지만, 미국 사회가 아메리카 원주민의 야만적 상태와 구분지어 문명의 상태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지리 교과서는 다른 과목의 교과서들보다 일찍부터 사회 및 국가 더 나아가 문명의 발전 과정과 단계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미국에서는 1820년대가 되면 스코틀랜드 계몽사상가들의 저서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프랑스의 지리서적의 영향을 받아, 문명 사회의 발전 단계에 대한 내용이 지리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등장하였다(서태열, 2020).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의 발전 단계를 제시한 것은 조셉 에머슨 워세스터(Joseph Emerson Worcester)인데(Craig, 2009), 그가 1819년에 쓴 *Elements of Geography, Ancient and Modern* 에는 “Man”이라는 주제 하에 사회의 상태를 야만(the savage), 미개(the barbarous), 반문명(the half-

civilized), 문명(the civilized)의 4단계로 제시하였다(Worcester, 1819:13). 이후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은 1821년 우드브릿지에 의해 사회 상태의 가장 높은 5단계로 계몽 내지 개화의 단계(enlightened stage)가 추가되는 등 수용과 변용이 일어났고, 우드브릿지는 문명발달단계를 지도화하였는데, 각 국가들을 문명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채색된 세계지도를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는 당시로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는데, 추상적이고 비구체적인 개념을 지도화하여 가시적으로 보여지도록 실현하였고, 이를 통해 세계 각 대륙별, 국가별 비교와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교와 분류는 당대로서 가장 중요한 교수의 방법이었었고 우드브릿지는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였던 것이다.

19세기 중반 지리 교과서들은 이해가 쉽고 암기에 용이하도록 교과서의 내용 전개는 거의 대부분 전통적인 질문-대답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그리고 문명과 관련하여 문명사회 발달단계론은 지리의 중요한 내용 성분이었는데, 각 단계별 단계로 주거와 의복, 식생활, 지식과 사회생활, 정치와 행정, 법과 도덕 및 경제 등을 서술하고 있었다. 1860년대 미국 지리교과서로서 가장 많은 판매부수를 가지고 인기가 높았던 미첼이나 코넬의 지리 교과서에서는 모두 half-civilized를 barbarous 단계와는 별도의 단계로 제시되었다(표 1 참조). 특히 19세기 전체에 걸쳐서 가장 많이 선호된 지리 교과서들을 썼던 미첼은 스코틀랜드계이어서 일찍부터 부친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스코틀랜드 계몽사상의 한 부분이었던 문명사회 발달론 내지 사회발달 단계론에 대해 익숙하였던 것

같다. 미첼은 교과서의 표지 뒷면에는 5단계로 savage (야만), barbarous(미개), 반개(half-civilized), 문명 및 개화(civilized and enlightened)의 4단계로 줄인 정교한 권두삽화를 실어서(그림 3(a)) 유명하였는데, 또한 본문에서도 이를 좀더 상세한 삽화로 부각시킴으로써(그림 3(b)), 지리 교과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문명의 발전, 사회의 발전과정의 모색이라는 것을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켜 직접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후 미국의 지리교과서에서 문명을 중심으로한 개념적 틀은 세계를 조직하는 핵심적 범주가 되었으며, 각 단계들 사이에는 명백한 순서와 질서가 들어있었다. 또한 이는 인종적 구분, 민족적 구분의 중요한 범주가 되었고, 지도와 지리부도 속의 세계를 구분한 중요한 틀이 되었다. 숄텐(2001:95)은 문명 사회의 발전 단계를 통한 지리의 구분(분류)들은 세계를 구분하고 미국인들에게 보다 더 큰(중중 신성한) 질서 속으로 그들이 어떻게 투영되는 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지리가 설명적인 것은 아니라도 평가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19세기 후반에서 말기에 이르는 시기 동안 많은 지리 교과서와 지리부도의 저자들은 또한 사회의 단계 그리고 인종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명의 수준에 따라서 세계를 조직하였다. 이에 따라 문명 발달 단계, 사회의 상태 내지 발달 단계는 여전히 삶의 방식과 결합되어 지리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역할을 하였고, 당시의 주요한 교과서 저자이고 지리부도의 저자들이었던 윌리엄 스윈튼(William Swinton, 1875), 조지 올위스 콜튼(George



그림 2. 우드브릿지의 세계 국가별 문명의 수준도

출처 : Woodbridge, 1822:10.

Woolworth Colton, 1880), 조지 크램(George R. Cram, 1899), 매튜 폰테인 모리(Matthew Fontaine Maury, 1899) 등은 이러한 문명 사회의 발전과정을 인종, 민족, 사회, 국가의 발전과정을 평가하는 중요한 틀로 받아들여 지리 교육 내용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였다(표 1 참조). 스윈튼은 기존의 4단계, 5단계를 압축하여 야만-미개상태, 반문명, 문명 상태의 3단계로 압축하면서 당대의 문명 발전상인 증기선, 전신, 다양한 사회시설들과 관련하여 문명의 상태를 제시하였고, 콜톤은 사회와 국가의 조직, 사회의 상태를 반영하여 간략한 5단계를 제시하였으며, 크램은 지리부도에서 복합적이고 상세한 지도와 해설을 곁들이면서도 국가와 사회의 상태, 정부, 종교와 직업, 농업 및 제조업, 교육체계 그리고 인종을 함께 고려하여 간략한 4단계를 제시하였다. 19세기 말에도 여전히 많은 인기를 누렸던 지리 교과서의 저자인 모리는 직업, 정부, 종교, 환경의 측면에서 야만, 미개, 문명화된 상태, 계몽 상태의 4단계를 제시하면서 인종적 측면에서의 차이를 부각시켰다.

3. 근대 미국 지리 교과서에서의 인종론

서구에서 인종(race)이라는 아이디어나 개념은, 18세기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유럽에 의한 다른 지역의 식민화 과정에서 다른 대륙의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성 즉 인류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Yudell, 2011:15). 미카엘 유델(Michael Yudell, 2011)에 따르면, 유럽의 식민화 과정에서 다른 대륙의 다른 사람들의 열등함을 합리화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시 유럽의 새로운 과학적 발달은 인종이라는 개념을 추동할 수 있었다.

18세기 초의 찰스 린네(Sir Charles Linne, 1806), 18세기 후반의 요한 블루멘바흐(John Blumenbach)는 그동안 유럽에서 제시되었던 인종의 분류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들을 체계화하고 종합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이들의 분류가 가장 많이 통용되었다. 린네(Linne, 1806:9)는 인종을 대륙별로 red American, white European, dark Asiatic, black Negro로 4가지로 구분하였고, 블루멘바흐는 린네의 작업 위에 두개골의 형태, 외모 등 몇가지



(a) 표지 그림

(b) 교과서 본문 그림

그림 3. 미첼 교과서의 문명사회 발달단계론의 삽화

출처 : (a) Mitchell, 1867; (b) Mitchell, 1867:35-38.

표 1. 19세기 지리교과서의 문명발전론

Worcester(1819)	Mitchell(1867)	Swinton(1875)	Maury(1899)
<p>Man(인류)</p> <p>인간은 피부색, 형태, 특성 그리고 진보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함을 보인다. 사회의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온대에서 나타난다. 인간은 the savage 야만, the barbaric 미개, the half-civilized 반문명, the civilized state 문명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p> <p>야만상태 the savage에서는 인간은 수렵, 어로 그리고 지구의 자생적 생산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생계를 꾸린다. 뉴홀랜드와 그 인근 섬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거주민, 아메리카 원주민 (aborigin)은 야만으로 간주된다.</p> <p>미개상태 the barbarous에서는 주로 유럽에서 그리고 약간의 미약한 농업으로부터 생계를 유지한다. 이상태는 중세기 동안 모든 유럽이 그러하였다. 지금은 야만이 아닌 아프리카의 지역, 아라비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북아시아에서의 상태이다.</p> <p>문명화된 상태 the civilized state는 인간사회의 가장 향상된(improved) 형태이며, 상당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 미국, 그리고 아메리카대륙의 약간의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다.</p>	<p>사회의 상태들 stat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류mankind는 그들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 어떤 두 개의 등급class으로 나누어지는가? • 인류는 그들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 두 개의 큰 등급으로 즉 야만Savage와 문명Civilized로 나누어진다. 이 두 개의 등급은 5개로 나누어질 수 있다. 야만the Savage, 미개Barbarous, 반개half-civilized, 개화Civilized, 문명Enlightened • 야만the Savage 생활이 뜻하는 것은 야만적 생활은 이동하는 부족들에서 보이는 생존의 가장 낮은 단계이다. 중앙 아프리카, 뉴기니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부족들의 상황이다. • 야만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야만인들은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 살며, 수렵과 어로 그리고 때때로 곤충, 뿌리, 야생과일을 먹고 산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며, 매우 잔인하고 미신을 믿는다. 어떤 야만인들은 식인종이며, 인간의 생살을 먹기도 한다., 그들의 지식은 무엇인가? 야만인들은 거의 전적으로 무지하다. 야만인들은 어떻게 통치되는가? • 미개Barbarous의 상태는 무엇인가? 미개의 상태는 두 번째의 단계이며, 야만만큼이나 낮지는 않다. 타타르, 아랍,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북미의 부족들이다. • 미개는 어떻게 사는가? 미개인들은 텐트나 거친 집에 살며, 그들은 가죽이나 무리들이 초지를 찾아서 이곳 저곳으로 이동한다. • 미개인들은 무엇을 먹는가? ... • 미개인들의 지식은 무엇인가? 미개인들은 문어를 가지기도 하며... 타타르, 아랍, 그리고 아프리카의 일부 부족들이 이 등급에 해당된다. • half-civilized반문명의 상태는 무엇인가? 반개는 삶과 그 양식에 있어서 미개의 것들을 개선한 것이다. • 이러한 개선의 증거는 무엇인가? 반개상태의 농업은 어느 정도의 기술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용한 기계들이 실행되고 개선된다. 도시와 읍이 만들어지고 송배(acom)되며, 민화와 문화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 그러나 반개국가들은 외부인들을 시기하며, 여성을 노예로 취급한다. 중국, 터키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 등급의 주요 국가들이다. • 문명화되고 개화된civilized and enlightened 국가들은 무엇인가? 문명화되고 개화된civilized and enlightened 국가들은 도덕, 정의 그리고 세련refinement에서 가장 큰 진보를 이룬 국가들이며, 그들 중에는 예술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으며, 과학도 부지런히 육성된다. • 문명화되고 개화된 국가들이 체계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무엇인가? ... • 개화된 국가의 대표적 예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다. • 그와 같은 모든 나라들은 문명화civilized되었는가? 모든 개화된enlightened 나라들이 똑같이 문명화된 것은 아니다. 그 정도는 다양하다. ...각 등급의 각국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많은 등급이 있다. 	<p>사회의 상태 stat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들이 중앙 아프리카의 마을 또는 인디언 부족을, 우리와 광범위하게 다른 사회의 상태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생생한 기술을 주도록 하라)아프리카와 인디언 부족들은 문서가 없고, 조야한 손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구의 자연적 생산물 또는 추격해서 죽인 동물들의 살을 바탕으로 거의 전적으로 먹고 살며, 불행한 미신 속에 잠겨있다. 그들이 가장 높고 고상하다는 모든 아이디어들은 저급하고 비굴한 것이다. 이것이 야만savage 또는 미개barbarous 상태이다. • (이제 교사가 우리 자신의 읍을 보는 것 같이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의 특성들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그와 같은 사람들은 문어 그리고 엄청난 문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시기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유용한 진실들을 기록하였다; 그들은 자연에서 모든 사물과 힘을 통제하는 많은 법칙들을 발견해왔고(과학) 그리고 그들의 안위를 경이로운 수준에 이르도록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지식을 적용하는 양식들을 발명(개발)해왔으며(예: 철도, 증기선, 공장과 계분소의 증기력, 전기 전선 그리고 재봉틀, 도시의 물과 가스, 마취약chloroform 등); 그들은 좋은 법들에 의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보장)한다; 그들은 자신단계(구)를 만들고 유지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보이며;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 지에 대한 높은 수준에 따라 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므로써 따라서 인간 종에게 끝없는 진보의 전망을 유지시켰다. 이것이 문명화civilized 상태이다. • (교사가 중국인과 같은 사람들의 사회적 상태에 대한 묘사(기술)를 주자)고정된 통치체제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이와 같은 공동체(사회community)에서 찾는다; 그들은 문어를 가지고 있고, 약간의 문헌이 있고, 많은 기계적 기계(arts)를 실행한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롭고, 교육받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아닌 것을 또한 발견한다. 이것이 반문명 half-civilized 상태이다. • 야만, 반문명 그리고 문명화된 상태는 세가지의 주된 인간 사회의 상태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상이한 인종은 모두 정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 적인의 집에 간다고 가정하고, 그들이 사는 것을 보라. 그들이 가족으로 만들어진 천막에서 생활하고, 먼 옷 즉 천으로 된 옷을 입는다. 야만 부족 가운데, 여성들은 일을 하며, 남성들은 사냥하거나 고기를 잡으며, 싸우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이 그들의 적을 죽이면, 그들을 죽은 적의 머리 가죽을 벗긴다; 즉 그들의 머리의 가죽을 부분을 잘라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땅의 붉은 야만인들보다 단지 약간 나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가보다. 우리는 방랑하는 야만인들을 방문할 것이다. • 그들은 인디언들이 하는 것처럼 텐트(천막, 움막)에 살지만, 양이나 염소 떼를 가지고 있다.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떠돌며, 그들의 동물을 위한 풀이 있는 곳 어디에서는 그들의 천막을 친다. • 그들은 책이나 학교가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미개인barbarous 이라고 불리운다. • 우리는 인디언이나 야만인들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을 방문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에 그들은 자리 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천막 대신에 그들은 안락한 집에 산다. 그들은 매우 큰 도시를 만들고 아름다운 비단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기꺼이 살려는 많은 다른 물건들을 만든다. 문명화된civilized 것이라고 부른다. 백인종의 국가들에서는 다른 어떠한 지역에서도 더 많은 책과 더 좋은 학교와 더 좋은 정부가 있다. 우리는 교회, 철로, 증기기관과 전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얀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지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돌출 시설을 가지고 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을 개화된 사람들enlightened 이라 부른다. • 그들의 직업, 정부, 그리고 종교와 관련하여 상이한 사람들을 비교해보라. 문명화된 환경의 한가운데서 소년과 소녀가 야만이 될 수 있는 지를 보여라.

출처 : Worcester, 1819:13; Mitchell, 1867:35; Swinton, 1875:18; Maury, 1899:19.

요소들을 근거로 1781년에는 Caucasian, Asiatic, American, Ethiopian 4가지 인종에 Malay 인종을 추가하여 5가지 인종으로 제시하였고, 이는 이후에 가장 많이 사용된 인종 분류가 되었다. 그는 코카서스, 아시아, 에티오피아를 대륙별로 주된 인종으로 보았고, 여기에 첨가한 아메리카인은 코카서스에서 몽골인으로, 말레이인은 코카서스에 에티오피아 인으로 가는 과정적 인종 즉 하나의 퇴화하는 과정에 있는 인종으로 보았다. 즉 그는 코카서스 인종을 원초적인 첫 번째의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두 개의 양 방향으로 발산하여, 한 쪽은 이디오피아 인종이고 다른 한 쪽은 몽골 인종이며, 아메리카 인종과 말레이 인종은 원초적인 인종과 이 두 가지 극단의 변이 인종으로서 중간적 위치를 점하는데, 즉 아메리카인은 코카서스와 몽골 인종 사이에, 말레이 인종은 코카서스와 이디오피아 인종 사이에 들어간다는 것이다(Bendyshe, 1865: 264-265).

이러한 틀에 따라 19세기에는 인간을 비롯한 인종 그 자체가 환경적 영향의 결과물로 보게 되었고 인간의 신체적 외모 뿐만 아니라 행동도 주위의 환경에 부합하여 변화한다고 보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빈 해리스(Marvin Harris, 1968:83)는 18세기, 19세기 환경적으로 야기된 인종의 변형 중 가장 인상적인 논증들 중의 한 가지는 인종 그 자체를 환경적 영향의 결과물로서 해석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신체적 외모와 행동은 주위의 환경에 부합하여 변화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는 이러한 인종에 대한 과학적 분류는 한 민족이나 집단을 지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모두 격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유럽에서의 인종 구분은 미국으로 건너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교육에서는 지리 교과서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미국의 건국 초기인 18세기 후반 지리 교과서의 저자들은 인종을 세계지리의 중요한 인자로 여기지 않았는데, 모스는 그의 지리서인 *American Geography*의 맨 끝의 추가정리 부분에서 “Linnaeus와 Buffon에 의해서 열거되었던 인간 종의 다양성은 6개이다”라고 처음으로 매우 간단히 언급하였다(Baker, 2005:173; Morse, 1789:529).

19세기 초기에 들어오면 미국의 지리 교과서의 저자들은 세계에 거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틀로서 인종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1820년대에서 1830

년대 사이에 학교지리 교과서에서 인종에 대한 항목들이 나타났고, 인종은 인간의 존재를 범주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등장하였는데, 여러 교과서의 교과서들 중에서 지리 교과서는 인종에 초점을 둔 내용을 제공하는 면에서 두드러졌다.

미국 지리 교과서에서 인종의 분류와 인종에 대한 서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조셉 워세스터(Joseph E. Worcester)의 교과서였는데, 그가 쓴 *Elements of geography ancient and modern*(1824)을 보면 자연지리 영역(physical geography)에서 인간(Man)이라 항목 아래에 인간에 대한 개요적 설명 후 피부색(complexion), 문명의 정도(degree of civilization)라는 소항목들이 제시되어 있었다. 그는 피부색이라는 소항목에서 인류는 하나의 공동의 기원으로부터 내려왔지만, 피부색, 형태, 성격 그리고 진보의 측면에서 커다란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기술하였고, 블르멘바흐의 5개 인종에, 린네가 별도로 제시하였던 인종인 Blackish를 추가하여 6개로 제시하였다(Worcester, 1824:17-18). 그는 인종을 피부색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래서 인종을 먼저 흑백으로 나누고, 백에는 white, the tawny or olive(몽골리인), and the copper-coloured(아메리카 인)의 세 종류가 있고, 흑에는 the black(Megro, or Ethiopian Race), the dark brown(말레이 인종) 그리고 the blackish(호텐토트 등 야만족 들)의 세 종류가 있다고 썼다(Worcester, 1824:18). 이는 린네의 대륙별 인종 구분을 따라 만들어진 블루멘바흐의 5대 인종을 그대로 가져오되, 인종을 흑백으로 대구분한 다음 그 아래에 린네가 sapience와 별도로 호텐토트, 뉴기니아인 등을 monstrous로 제시한 항목을 포함하여, 6가지 인종을 세 종류씩 세분류하였던 것이다. 이는 흑백으로 인종 구분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는 온대에서 가장 유리한, 가장 바람직한 사회의 상태가 나타난다고 진술하여 환경론에서의 기후결정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드브릿지는 지리 교과서에서 블루멘바흐의 분류를 그대로 받아들여, 유럽인종, 아시아 또는 몽골인종, 아메리칸 또는 인디언, 말레이인종, 아프리카인 또는 흑인의 5개 인종을 제시하였다. 즉 우드브릿지(1827:165)는 *A System of Universal Geography*라는 지리 교과서에서 “races of man”이라는 항목에서부터 인종의 분류에 이어 기후, 국가, 자연환경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상들을 인종과 관련시켜 다루었다.

이처럼 1820년대 후반에는 지리 교과서에서 인종은 중요한 내용 요소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인종별 외모, 피부색, 머리카락, 코, 입, 관습, 교육 등의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당시의 지리 교과서의 저자들은 자신의 교과서의 속표지에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삽화들을 넣었는데, 제시 올니(Jesse Olney, 1829)는 지리 교과서의 속표지 그림에 인종 그림을 실었을 정도도 매우 비중있게 보았으며(그림 4), 이는 속표지에 인종도를 넣은 최초의 교과서였고 이를 통해 인종과 대륙은 연결되어졌다. 올니는 기후, 즉 대기의 온도는 상이한 피부색의 주된 원인이고, 인간 종의 외형적 형태는 극도로 덥거나 추울 때, 시간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검은 피부색 만들어내고, 온난할 때는 밝은 피부색을 만들어 내며, 기후뿐만 아니라 음식, 의복, 생활양식, 그리고 특

정한 관습이 인종의 외형적 형태의 원인으로 볼 수도 있다고 기술하였다(Olney, 1829:252-253). 또한 인종은 지리부도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토마스 가마리엘 브래드포드(Thomas Gamaliel Bradford (1835)가 지리부도의 표지에 인종도를 넣어서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4(b)). 한편, 당시 지리 교과서에서 핵심적 주제의 네 가지 요소를 선정하여 한 지면의 네 모퉁이에 삽입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그림들은 지구 전체에 걸쳐 4가지 구역별로 정보를 넣는다고 하여 “지구의 4대 구역(The four quarters of the globe)”이라고 불리워졌고, 교과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회화적 방식으로 제시하는 하나의 틀이었다(Schulten, 2001:34).

1850년대 미국의 지리 교과서에서 가장 채택율이 높



그림 4. 19세기 지리 교과서와 지리부도의 인종도

출처 : (a) Olney, 1829; (b) Bradford, 1835; (c) Gram, 1899; (d) Monteith, 1885.

있던 저자는 미첼, 코넬, 콜톤과 피치(Colton, George Woolworth and George W. Fitch, 1866) 등인데, 이들도 거의 블루멘바흐의 인종분류를 그대로 실었으며, 또한 유사한 분류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하나의 별도의 인종이라는 분리된 항목에서 피부색에 의해 유럽인, 중국인, 말레이(Malay), 인디언(red indian), 그리고 아프리카인으로 나누었으며, 문명의 상태에 따라서 문명, 반문명, 야만, 미개로 등급을 매겼고 그리고 농경, 제조업, 상업에서의 숙련된 정도에 따라서 그들을 구분하였다(Gomley, 1993:91). 이들은 인종도를 통하여 사회발달, 문명발달을 고취하였으며, 문명화된 국가의 국민들은 억압적이지 않은 정부를 형성한다고 기술하여 사회의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19세기 중반이후 대부분의 지리 교과서는 “races of man”이라는 제목이 붙은 항목을 포함하였고, 인종들의 특정한 성격들이 다루어지고 개별 인종은 그 특성의 바람직함에 따라 분류되었다. 그러나 인종론은 점점 백인종 우월주의 내지 인종주의와 결합하여 교과서와 지리부도에 나타난다. 해양학의 아버지이고 반 세기동안 매우 높은 채택율을 보인 지리교과서의 저자인 메튜 머리(Matthew F. Maury, 1892)는 “백인은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고 세계의 주인이다”(Maury, 1899:21-22)라고 썼고, 윌리엄 스윈튼(William Swinton, 1875)은 “백인은 또한 코카서스인이라고 불리는데, 가장 강력하며 사람들의 대부분이 포함된다”(Swinton, 1875:28)라고 하였으며, 귀요는 백인종은 가장 중심적인 정상적이고 전형적인 인종이고, “지금과 과거의 모든 시기에서도 문화와 진보의 인종이었다”(Guyot, 1873:118)라고 진술하였다. 베이커(Baker, 2005:165-166)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을 통하여 비백인들의 태생적 그리고 영속적인 열등성을 가정하는 일련의 독트린들이 나타났으며, 인류라는 종의 위계가 보다 공식적이고 멀리 퍼진 양식으로 성립되었고, 도덕적 자질과 지적 그리고 감성적 능력 모든 것에 연결되어 졌다. 19세기의 지리 교과서에 기술된 인종과 그 분류에 대한 내용을 주도적인 저자들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 표 2과 같다.

19세기 말 인종은 신체적 특징과 결합하여 보다 상세화되고 종합화되었으며, 상이한 인종에 따라서 국가 그리고 대륙에 의해 성취된 “진보(progress)”의 수준들까지 함께 제시되었다(표 2 참고). 스윈튼(1975), 콜톤(1880), 크랩(1896) 등은 교과서와 지리부도에서 자연환경을 지



그림 5. 지구 5 지대의 환경, 인간, 문명

출처 : Yaggy, 1887:4.

대별로, 기후대별로 식생, 경작물, 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화하고, 인구, 인종과 문명발달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매우 탁월한 교과서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스윈튼의 교과서는 매우 인상적인 교과서의 표지를 보여주었는데, 책의 표지에 지리와 관련된 많은 인물들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표지의 네 모퉁이에 4개의 인종(아메리카 인디언, 말레이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그림이 삽입되고, 이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4각형의 모퉁이에 지리 관련 중요 인물들 즉 컬럼버스, 헤로도투스, 마르코 폴로, 훔볼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9세기 미국의 지리 교과서는 인종을 중심으로, 환경을 중심으로, 문명을 중심으로 세계를 조감하고 이해하며 조직하는 틀로서 작용하였다. 인종, 환경, 문명이 위도별로, 기후대별로 기후, 인간, 산업, 생산물과 결합되어 인간관, 자연관, 세계관의 통합적 체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월터 레비 야기(Walter Levi Yaggy, 1887)의 삽화(그림 5)인데, 이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징적 표상이었고 지리적 지식의 스키머였다.

표 2. 19세기 지리 교과서의 인종 기술 내용

Worcester(1824)	Mitchell(1867)	Swinton(1875)	Cram(18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인 또는 코카사스 인종은 라프란드인들을 제외한 모든 유럽인들을 포함하며, 체르케스인, 조지안, 아랍투르크, 페르샤인, 인도인이 포함된다. • 황갈색인 또는 올리브색인 또는 몽골리언 인종은 타르타르, 중국인 그리고 말레이을 제외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주민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또한 유럽의 라플란드인도 포함된다. • 구릿빛(적갈색) 인 또는 아메리카 인종은 아메리카 인종을 포함한다. • 황갈색 또는 말레이 인종은 말레카 반도와 아시아의 여러 섬들에서 보이는 말레이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 흑인 또는 니그로 또는 이디오피아 인종은 니그로의 아프리카를 이룬다. • 블랙키시 인종은 호텐토트, 그리고 뉴홀랜드(뉴질랜드), 뉴기니아, 뉴칼레도니아의 아만인들로 구성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들에서 인종의 다양성의 원인은 무엇인가? 인간들 간의 인종의 다양성의 모든 원인들은 알려져 있지 않다. 기후, 식량, 생활양식 모든 것들이 이러한 다양성을 산출하는데 어떤 영향을 준다. • 다양한 인종들은 무엇에서 다른가? 다양한 인종들은 색, 형태, 특성 그리고 정신적 능력에서 다르다. 따라서 수없이 많은 이종(변종)들이 형성된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인종들로 줄일 수 있는가? 인종들은 숫자상 다섯 가지로 줄일 수 있다: the Caucasian, 또는 백인종; Mongolian 또는 황인종; the African 또는 흑인종; 말레이(Malay 또는 갈색인종; 그리고 the American 또는 적인종 • 코카서스인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코카서스인들은 흰 피부색이며, 정교하게 형성된 특성들과 잘 발달된 형식을 가지고 있다...인간 집단의 가장 향상되고 지성적이며, 진보와 문명에서 가장 높은 정도를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또한 유럽인종이라고 불리운다. • 몽골리언 또는 몽골 인종에 대해 알려진 것은 무엇인가? 몽골리언 인종은 황색 피부를 가지고 있고, 눈은 얼굴에서 약간 경사져 있다. 성정에서는 그들은 인내심이 있고 부지런하나, 그러나 재능에서 제한적이고 진보에서는 느리다. 중국인... 여기에 속한다고 한다. • 흑인 또는 니그로 인종에 대해 무엇이러 하는가? 흑인들은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신체적으로 강하며 적극적이거나, 습관이 나태하며, 어떤 높은 정도의 문명을 성취한 적이 없다. 그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남부의 거의 모든 구역에 거주... • 말레이 인종은 무엇이라 하는가? 말레이 인종은 검은 갈색 피부색을 가지고 있으며, 성격에서 무시무시하고 복수심에 불타며, 문명에서는 조금의 진보도 만들지 못했다... • 아메리칸 또는 적인종은 무엇이라 하는가? 아메리칸 또는 적인종은 구리 빛이며, 검은 직모이고, 키가 크고 잘 형성되어 있으나, 복수에 불타고 전쟁을 좋아한다. 그들은 백인 문명의 진보 앞에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ucasian race는 유럽 사람들과 아메리카와 다른 곳의 그들의 후손들로 대표된다. 일반적인 피부색(일부 대표자는 거무스럽하지만, 아랍과 인도인들이 이 형태에 속한다. 정상적인 용모(이목구비),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가득한 턱수염. 그들은 세계 문명의 리더들이다. • 황색인종은 중앙과 동부 아시아에 중국, 일본, 타가르에 넓게 걸쳐 있고, 양 대륙의 극지방의 희박한 sparse 인구들을 포함한다. 몽골리언들은 올리브-노란색 피부, 검은 직모 모리카락, 넓은 얼굴생김새, 높은 광대뼈, 경사진 눈을 가지고 있다. 문명에서 코카서스인 다음의 순위이다 • 니그로 형태는 (다양한 인종으로 대표되는) 아프리카의 대부분에 걸쳐 퍼져있다. 이들은 많은 측면에서 다르지만, 모두 어둡고 검은 피부색, 짧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넓고 평평한 코, 두꺼운 입술을 가지고 있어, 모두가 비슷하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부족들은 야만 혹은 미개한 상태에 있다. 미국의 몇 백만의 유색인종(아프리카 원주민의 후예들) 기독교화되고 문명화되었다. • 말레이 인종은 말레이반도 그리고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에 있다. 그들은 갈색의 피부색을 가지고 있으며, 용모가 중국인들의 것을 상당히 닮았으며, 일반적으로 검은 눈을 가지고 있다. • 인디언 인종은 아메리카의 토착 인종을 대표한다. 그들은 구리빛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 다소 정규적인 외모, 직선의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턱수염은 거의 없다. 그들은 항상 문명에 대한 능력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발견되는 인간 종은 기후와 토양의 거의 모든 다양성에 적응하였고, 5가지 일반적 등급 또는 종으로 배열될 수 있다. 즉 1. 코카서스인 또는 백인 2. 몽골인 또는 황색인 3. 에디오피아인 또는 니그로 4. 말레이인 5. 아메리카인 또는 인디언 • 코카서스인 또는 백인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코카서스로부터 그 이름을 가져왔으며, 그곳은 매우 아름다운 사람들로 유명하다; 피부색은 밝고, 이마는 가득하고, 머리카락은 부드러우며, 턱수염은 무겁다. 그들은 서남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의 일부의 거주민이다. 그들은 문명과 위대한 지성으로 유명하다; 그 수는 6억명 • 몽골리언은 황색 피부색, 평평한 얼굴(안면), 돌출된 광대뼈, 경사진 눈, 그리고 거친 직모를 가졌다. 그들은 아시아, 아메리카의 극 지역, 그리고 북동유럽. 그 수는 5억 8천 9백만명으로 추정된다. • 에디오피아인 또는 니그로는 평강히 검다; 이마는 뒤로 들어가고, 코는 평평하고, 입술은 두껍고, 턱뼈가 돌출되었고, 머리는 검고 털이 많다. 그들은 약 1억 8천 5백만명. 아프리카에 산다. • 말레이인은 갈색의 상이한 음영으로 되어있고, 이마는 낮고 넓으며, 입은 크고, 머리카락과 턱수염이 많고, 검은 곱슬머리이다. 그들은 말레이반도, 오세아니아 도서에 산다. 추정되는 수는 5천 5백만명이다. • 아메리칸 또는 인디언은 구리빛이다; 넓은 안면, 돌출된 외관, 이마는 낮고, 광대뼈는 높고, 머리카락은 직모, 통풍이 잘 안되고 그리고 검다. 그러나 턱수염은 거의 없다. 이 인종은 극 지방의 해안을 제외한 북미와 남미의 원시부족들이며, 추정되는 인구는 1천 1백만이다.

출처 : Worcester, 1824:18; Mitchell, 1867:32; Swinton, 1875:17; Cram, 1899:382.

IV. 결론

미국의 근대는 영국의 산업혁명기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근대국가로서 등장하여 19세기 말 세계적인 국가로 발전해나갔던 시기인데, 현대 미국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변혁 및 혁신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였다. 19세기 중반에 미국-멕시코 전쟁, 남북전쟁, 루이지아나 합병과 서부로의 확장이 일어났고, 19세기 말에는 미국-스페인 전쟁으로 영토를 최대한 확장하는 등 일련의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19세기 중반 진화론의 등장으로 프로테스탄트적 세계관, 우주관에 변화를 겪게 되는 등 매우 역동적인 격변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와 더불어 국가 면적의 엄청난 확대, 사회의 복합화는 정치, 경제, 교육 전반에 걸친 변혁과 혁신을 더욱더 요구하게 되었다. 학교교육에서 지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국 근대 지리교육은 미국의 독립 후 영국의 영향을 벗어나 미국적 관점을 지닌 세계지리를 중심으로 독자성을 모색하는 발판이 되었고, 19세기를 넘어가면서 자연신학에 토대를 둔 자연과 인간사회에 대한 이해를 체계화하면서도, 문명사회발전단계론에 따른 사회, 국가, 문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진화론 및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연신학에서 벗어나 사회발전단계론 한 단계 높이는 도약의 시대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국 근대에서의 지리교육의 역할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였는데, 특히 지리 교과서를 통하여 사회적, 국가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환경, 인종, 문명과 관련된 사상과 담론이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대 초기에 미국의 교육에서 지리는 미국적인 자주성과 미국중심의 세계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모스를 중심으로 유럽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 아메리카적인 관점을 형성하는데, 지리 교과서는 일조하였다. 이후에 우드브릿지는 페스탈로치의 영향으로 학생중심, 실세계 중심의 지리교육을 실천하였고, 미첼

은 천문지리, 자연지리, 정치지리의 3분법적 지리교육 내용의 구조를 확고하게 하는 가운데 지리 교육의 내용을 시각화, 종합화,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데이비스는 대학의 학문적 지리를 제도화함으로써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현대적 기초를 성립시켰다.

둘째, 근대 초기의 미국 지리교육의 기저 사상이자 핵심적 담론이었던 자연신학은 모스, 우드브릿지, 미첼이 활동하던 시기까지 중심적인 사상적 배경이었고, 지리적 현상을 신의 영향력에 의해 설명하고 종합화하였다.

셋째, 당시의 지리 교과서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였던 환경론은 주로 환경결정론에 입각하여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을 연계하여 설명하였는데, 19세기 말에는 진화론의 등장으로 환경결정론적 설명체계는 더욱 공고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다른 견해인 환경기능론도 등장하게 하였다.

넷째, 문명론은 19세기 초반부터 지리 교과서에 도입되어 핵심적인 교과 내용이 되었고, 야만에서 문명 그리고 문명으로 이르는 인류사회 진화의 경로를 제시하여 사회적 국가적 발전방향의 모색에 중요한 비전을 제시하였고, 20세기까지 지리 교과서의 중심적 내용으로 가르쳐졌다.

다섯째, 인종론은 문명론과 거의 비슷하게 19세기 초반에 지리 교과서에 등장하였고, 인종과 대륙, 그리고 문명수준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 세계의 각 지역의 사회, 국가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틀이 되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백인우월주의적인 관점을 유지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註

- 1) Hübner, Johann, 1749, *A New and Easy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Geography by way of Question and Answer*, translated by J. Cowley, 3rd ed., London: T. Cox and J. Hodges. 휴브너의 독일어 초판은 1738년에 나왔고, 콜리의 번역본은 1746년에 런던에서 독일 라이프찌히 판본을 이용하여 번역하였는데, 중세 지리서의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 김응중, 2009, “문명의 개념과 문명사 연구” 역사와 담론 52, 221-243.
- 박양신, 2008, “근대 초기 일본의 문명 개념 수용과 그 세속화” 개념과 소통, (2), 33-74.
- 서태열, 2017, “알레니의 세계지리서 「직방외기(職方外紀)」의 지리 지식의 구성 및 기술” 한국지리학회지, 6(3), 305-318.
- 서태열, 2019,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에 수록된 세계지리 내용에 대한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8(3), 377-397.
- 서태열, 2020, “19세기 지리교과 교과서에 담긴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의 수용과 변용: 스코틀랜드-미국-일본-한국” 한국지리학회지, 9(3), 491-518.
- 이영석, 2014, 「지식인과 사회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역사, 서울: 아카넷.
- 장인성, 2019, “유길준의 문명사회 구상과 스코틀랜드 계몽사상-유길준, 후쿠자와 유키치, 존 힐 버튼의 사상연쇄” 개념과 소통, (23), 189-235.
- Adams, D., 1820, *Geography; or, a Description of the World, 5th ed.*, Boston: Lincoln & Edmands.
- Baker, A., 2005, Geography, pedagogy, and race. *Schoolbooks and ideology in the antebellum United States, Proceedings of American Antiquarian Society*, 163-190.
- Bendyshe, T., (ed.), 1865, *The Anthropological Treatises of Johann Friedrich Blumenbach*, London: Longman, Green, Longman Roberts & Green.
- Bradford, T.G., 1835, *A Comprehensive Atlas Geographical Historical and Commercial*, Boston: Lewis and Penniman.
- Brown, R.H., 1941, The American Geographies of Jedidiah Mors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31(3), 145-217.
- Calhoun, D.H., 1984, Eyes for the Jacksonian World: William C. Woodbridge and Emma Willard,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4(1), 1-26.
- Carey, M., 1795, *The General Atlas for Cater's Edition for Guthrie's Geography Improved*, Philadelphia: Mathew Carey.
- Colton, G.W. and George W.F., 1866, *Colton & Fitch's Modern School Geography*, New York: Sheldon and Company.
- Colton, G.W., 1880, *Colton's Common School Geography*, New York: Sheldon and Company.
- Craig, A.M., 2009,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The Early Thought of Fukuzawa Yukichi*,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 Cram, G.R., 1899, *Cram's Universal Atlas: Geographical, Astronomical and Historical*, Chicago and New York: George R Cram.
- Culler, N., 1945, *The Development of American Geography Textbooks from 1840-1890*,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 Davies, B., 1805, *A New System of Modern Geography or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Most Remarkable Countries throughout the Known World*, Philadelphia: Jacob Johnson & Co.
- Davis, W.M., 1884, Geographic classification, illustrated by a study of plains, plateaus and their derivatives, in *Proceeding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33, 428-432.
- Dryer, C.R., 1913a, The new departure in geography(I), *The Journal of Geography*, 11(5), 145-151.
- Dryer, C.R., 1913b, The new departure in geography(II), *The Journal of Geography*, 11(6), 177-190.
- Dryer, C.R., 1924, A century of geograph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4(3), 117-149.
- Dwight, N., 1808, *A Short but Comprehensive System of the Geography of the World by way of Question and Answer*, New York: Evert Duyckinck.
- Fell, M.L., 1941, *The Foundation of Nativism in American Textbooks, 1783-1860*,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n Press.
- Gornley, E., 1993, Popular Darwinism and geography textbooks in Canada, 1850-1920, *Past Imperfect*, 2, 87-106.
- Guyot, A., 1849, *The Earth and man: Lectures on Comparative Physical Geography*, Boston: Gould and Lincoln.
- Guyot, A., 1870a, *The Earth and its Inhabitants, Common*

- School Geography*, New York: Charles Scribner.
- Guyot, A., 1870b, *The Earth and its Inhabitants, Intermediate Geography*, New York: Charles Scribner.
- Guyot, A., 1873, *Physical Geograph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Harris, M., 1968, *The Rise of Anthropological Theory: A History of Theories of Culture*, New York: Thomas Y. Crowell.
- Hauptman, L.M., 1978, Westward the course of empire: Geography schoolbooks and manifest destiny, 1783-1893, *The Historian*, 40(3), 423-440.
- Herbst, J., 1961, Social Darwinism and the History of American Geography,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05(6), 538-544.
- Hinman, R., 1888, *Eclectic Physical Geography*,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 Hübner, J., 1749, *A New and Easy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Geography by way of Question and Answer*, translated by J. Cowley, 3rd ed., London: T. Cox and J. Hodges.
- James, P.E., 1969, The significance of geography in American education, *Journal of Geography*, 68(8), 473-483.
- James, P.E., 1972, *All Possible World: A History of Geographical Ideas*, Indianapolis: John Wiley & Sons.
- Linne, S.C., 1806, *A General System of Nature*, London: Lackington, Allen, And Co.
- Littlefield, H.M., 1967, Textbooks, Determinism and Turner: The Westward Movement in Secondary School History and Geography Textbooks, 1830-1960,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 Livingstone, D.N., 1992, *The Geographical Tradition*, Cambridge, Massachusetts: Blackwell.
- Maury, M.E., 1899, *Elementary Geography designed for Primary and Intermediate Classes*, New York, Boston and New Orleans: University Publishing Co.
- McGee, W.J., 1896, The work of the National Geographic Society,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7(8), 257-258.
- Mitchell, S.A., 1867, *A System of Modern Geography, Physical, Political, and Descriptive*, Philadelphia: J. H. Butler & Co.
- Monteith, J., 1885, *New Physical Geography*, New York, Cincinnati, Chicago: American Book Company.
- Morse, J., 1784, *Geography Made Easy*, Boston: Thomas & Andrews.
- Morse, J., 1789, *The American Geography*, Elizabeth Town, New Jersey: Shepard Kollock.
- Morse, J., 1793, *American Universal Geography*, Boston: Isaiah Thomas and Ebenezer Andrews.
- Nietz, J.A., 1961, *Old Textbooks: Spelling, Grammar, Reading, Arithmetic, Geography, American History, Civil Government, Physiology, Penmanship, Art, Music, As Taught in the Common Schools from Colonial Days to 1900*,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 Olney, J., 1829, *A Practical System of Modern geography*, Hartford: D. F. Robinson & Co.
- Parish, E., 1810, *A New System of Modern Geography*, Newburyport: Thomas and Whipple.
- Patton, J.C., 1999, The American School Atlas: 1784-1900, *Cartographic Perspectives*, 33, spring, 4-32.
- Peet, R., 1985, The social origins of environmental determinism,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5(3), 309-333.
- Rassweiler, H.H., 1888, *Teacher's Handbook Designed to Accompany Yaggy's Geographical Study*, Chicago: Western Publishing House.
- Robinson, A., 1982, *Early Thematic Mapping in the History of Cartogra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wson, S., 1806, *An Abridgment of Universal Geography, together with History*, Boston: John West.
- Schulten, S., 2001, *The Geographical Imagination in America, 1880-195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oddart, D.R., 1966, Darwin's impact on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56(4), 683-698.
- Swinton, W., 1875, *A Complete Course in geography Physical, Industrial, and Political*, New York and Chicago: Ivison, Blakeman and Co.

- Vining, J.W., 2011, *Astronomical geography: An Examination of the Early American literature*, *The Geographical Bulletin*, 23, 30-40.
- Warntz, W., 1964, *Geography Now and Then*, New York: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 Woodbridge, W.C., 1822, *Rudiments of Geography on a New Plan*, Hartford: Oliver D. Cooke & Co.
- Woodbridge, W.C., 1827, *A System of Universal Geography*, Hartford: Oliver D. Cooke & Co.
- Worcester, J.E., 1819, *Elements of geography ancient and modern*, Boston: Timothy Swan.
- Workman, B., 1805, *Elements of Geography*, Philadelphia: John McCulloch
- Wright, J.K., 1952, *Geography in the Making*, New York: The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 Yaggy, L.W., 1887, *Yaggy's Geographical Study Comprising Physical, Political, Geological, and Astronomical Geography*, Chicago: Western Publishing House.
- Yudell, M., 2011, A short history of the race concept, in

Sheldon K. and Kathleen S., eds., *Race and the Genetic Revolution: Science, Myth, and Cul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3-30.

교신 : 서태열,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tyseo@korea.ac.kr)

Correspondence : Tae-Yeol Seo, 02841, 145 Anam-ro, Seongbuk-gu, Seoul,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Email: tyseo@korea.ac.kr)

투고접수일: 2022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22년 12월 17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6일